

기술과 예술의 관계의 역사적변화에 대한 리해

김 명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물질문화적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1권 274페이지)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하면 인간의 물질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레하면 자연을 개조하여 인간의 생존과 사회발전에 필요한 물질적부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리용되는 수단이나 수법으로 리해하고있다. 한편 예술이라고 하면 인간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적요구 특히 정서적요구를 실현시켜주는 사회적의식 형태로 보고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기술과 예술에 대한 리해는 기술과 예술의 관계의 역사적변화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고대시기 예술은 기술이라는 개념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있었다.

고대시기 기술과 예술은 지식학적측면에서 결합되어있었다.

이로부터 고대그리스에서는 《예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 $\tau \epsilon \chi \nu \eta$ 》(테크네)라는 개념속에 포함되어있었다. 《 $\tau \epsilon \chi \nu \eta$ 》가 영어 《technic》의 어원이라는 데서 알수 있는것처럼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었다. 《 $\tau \epsilon \chi \nu \eta$ 》에는 당시 예술에 속하는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등은 물론 변론술, 조선술(배무이기술), 요리술, 의술과 같은 오늘날 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야와 일련의 학문들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도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과 같은 예술에 속하는 분야들을 기술속의 다른 분야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미메시스》라는 종차를 제기하였다. 《미메시스》란 모방을 의미하는 말로서 결국 고대인들에게서 예술은 《모방의 기술》로 리해되였다.

《모방의 기술》로서의 예술이 기술과 다른 점은 그것이 실물을 만드는데가 아니라 실물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상》(실물의 그림자)을 얻어내는데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대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의 기술인 경우를 놓고볼 때 우리는 건축술에 의하여 실물인 집을 만들고 회화의 기술에 의하여 어떤 다른 집을 만든다고 말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회화에 의하여 대표되는 예술은 건축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술에 비하여 물질성이 결핍되고 다만 실질적인 대상을 모방하는데 그치는것으로서 기술과 구별된다는것이다.

플라톤은 기술과 예술의 차이를 《3가지 침대》로 실례들었다. 여기서 《3가지 침대》란 하나는 신이 만든 침대 즉 리념의 세계속에 있는 침대이고 다른 하나는 리념의 세계속에 있는 침대를 모방하여 목수가 만들어낸 실물로서의 침대이며 끝으로는 화가가 그린 영상으로서의 침대(목수가 만들어낸 침대에 대한 모방의 결과)를 말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러한 《3가지 침대》에서 첫째 침대는 진리로 된다. 결국 그에 의하면 진리로서의 첫번째

침대와 그의 모방인 목수의 침대, 목수의 침대를 모방한 화가에 의한 침대사이에는 거리가 있게 되며 따라서 화가는 진리를 밝힐수 없는것으로 하여 그 사회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을 《참한 분별의 작용이 따르는 제작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물건을 제작하는 능력이며 단순한 경험적숙련이 아니라 이성적인 분별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법칙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나 그것에 의하여 만들어진것들의 원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각작품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술을 기술속에 포함시켜보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그가 예술을 《모방의 기술》로 보면서도 지식학적측면에서 다루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비극이란 일정한 시간내에 완결된 고귀한 행위의 모방이고 쾌적인 효과를 주는 말과 부분에 따른 여러 형상들을 쓰거나 서술이 아니라 인물들의 행위를 통하여 측은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서 감정의 정화를 이루는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예술을 《모방의 기술》로 보면서도 플라톤과는 달리 예술의 《쾌》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예술이 기술과 다른 점을 뚜렷이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예술적인 《쾌》도 궁극에 있어서는 지식학적측면에서의 《쾌》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시(예술)의 기원은 모방이고 인간이 모방된것을 기뻐하는 리유는 배운다는것이 철학자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즐거움이기때문이라고 명백히 하였다.

이처럼 고대시기에는 다소 기술과 예술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다같이 지식학적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예술이 기술의 부속물로 되어있었다.

다음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예술이 점차 기술속에서 부단히 분화되었다.

고대시기에 예술은 《모방의 기술》로서 기술의 지적, 학문적계기들과 조화되어있었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흐름속에서 예술은 점차 기술속에서 분리되어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고대이후시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강조되면서 종래의 기술에서 실천적, 육체적성격이 강한 분야와 정신적측면이 강한 분야의 분리가 심화된것과 관련된다.

기술을 지적, 학문적인 기술과 육체적인 기술로 양분화하는 경향은 기술자체의 분화를 촉진시켰을뿐아니라 《모방의 기술》로서의 예술자체에서의 분화도 심화시켰다. 이러한 복잡한 분화속에서 기술과 예술의 관계도 점차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세기에 이르러 기술은 크게 지적, 학문적성격을 띤 《자유로운 기술》과 육체에 의존한 《기계적기술》로 분화되었다.

이로 하여 아직은 시와 음악, 회화와 조각 등과 같은 분야들이 《예술》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속에 통일되어있지 않던 예술분야에서도 《자유로운 기술》과 《기계적기술》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기술과 예술의 관계가 매우 복잡한 변화를 나타내게 하였다.

예술분야를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당시의 경향에 따라 음악이나 시와 같은 예술형태들은 《자유로운 기술》에 속하였고 회화나 조각과 같이 손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술형태들은 《기계적기술》에 속하였다.

물론 이것은 기술과 예술분화의 합법칙적과정이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예술이 기술속에서 완전히 분리된것은 아니였다.

예술이 기술속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자면 예술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기술》과 《기계적기술》사이의 차이가 해소되고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건적인것은 이른바 《기계적기술》로 취급되는 예술분야들이 단순한 육체에 의거한 분야가 아니라 《자유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활동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는것이다.

《기계적기술》과 《자유로운 기술》의 차이를 해소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대표자는 15세기 도이칠란드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니콜라우스 쿠사누스(1401-1464)이다. 그는 《기계적기술》에 대하여 론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자기속에 《상》을 품는 자유로운 능력을 가지며 그 《상》을 나타내는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조각가, 화가, 야장공, 직물공 등과 같은 직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계적 기술》에 있어서도 《상》, 말하자면 구상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정신적측면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정신적인 측면을 가진다는것을 강조한것으로서 새로운 안목에서 예술을 대하고 기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분야로 내세울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의의가 있었다.

문예부흥기에는 지난 시기 육체적로동으로 천시받던 《조형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눈에 띄이게 나타나게 되었다.

문예부흥기에는 《몬나리자》나 《최후의 만찬》과 같이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작으로 널리 알려진 귀중한 조형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조형예술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바자리(1511-1574)가 회화, 조각, 건축을 동일한 기술분야로 보고 이 3가지 기술의 근본은 《디세뇨》이며 3가지 기술은 《디세뇨의 기술》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디세뇨》란 회화에서 소묘나 밑그림과 같은것을 뜻하는 말로서 거기에는 대상에 대한 구상, 의도와 같은 정신적측면이 담겨져있다.

이것은 문예부흥기에 인문주의흐름을 타고 인간의 인식능력이 중시되면서 점차 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인간의 정신적활동이라는 공통성을 가진다는것을 이론적으로 근거짓고 나아가서 예술을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내세울수 있는 가능성이 커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문예부흥기의 예술에 대한 견해도 기술과 완전히 분리된 견해가 아니였으며 기술의 지적, 학문적성격을 강조한 견해였다.

이것은 문예부흥기의 이름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경우를 놓고 잘 알수 있다.

그는 회화를 《자연철학-과학》과 다름없는 분야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수기에서 《회화를 경멸하는자는 철학도 자연도 사랑하지 않는자이다. ... 눈에 비치는 작품(자연)의 유일한 모방자인 회화를 경멸한다면 철학적이고 섬세한 사색에 의하여 온갖 형태 즉 빛과 그늘에 둘러싸인 공기나 장소, 식물, 동물, 화초의 성질을 분석하는 섬세한 발명력을 경멸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이 분야야말로 <자연>의 학이고 적자(적

임자)인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화가의 《과학》은 신과 같은 성격을 띠는데 그 이유는 화가의 두뇌가 신의 두뇌와 비슷하게 변하기때문이며 화가는 바로 신의 성격을 지닌 자기의 《과학》과 능력에 의하여 모든 사물현상을 마음대로 창조해낸다고 하였다.

다 빈치의 회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는 비록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지만 인간을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신권을 부정하고 현실의 인간에게 주의를 돌릴것을 제창한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적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문예부흥기 예술에 관한 견해는 아직은 그것을 《모방의 기술》로 보는 지난 시기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였으며 특히 예술의 기능을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인식적기능에 한정시킨 일면성이 있었다.

이처럼 중세로부터 문예부흥기에 이르는 기간 기술과 예술의 관계는 복잡한 변화를 보이면서 기술로부터 예술의 분화과정을 촉진시키였다.

다음으로 근대에 이르러 기술로부터 예술이 완전히 분리되어 기술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였다.

근대시기 기술과 예술의 관계변화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조형예술과 음악이나 시사이의 차이가 해소되고 이 분야들이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면서 《자유로운 기술》에 속하던 학문들과 구별되어간것이다.

17세기에 이르러 지난 시기 회화와 조각과 같은 조형예술의 지위가 음악이나 시와 동일시되면서 예술의 모든 형태들이 《자유로운 기술》로 불리웠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7세기에 《자유로운 기술》을 뜻하던 표현이 《자유예술》이라는 의미로 변화되고있었다. 《자유예술》이란 사회의 상층계층에 속하는 인물들이 꼭 갖추어야 할 취미적교양을 이루는 말이다. 여기에는 시, 음악, 회화, 조각, 건축 등 현재 예술에 속하는 분야들과 함께 병법, 항해술, 광학, 력학 등 학문분야들도 속해있었다.

이로부터 예술과 학문사이의 계선을 긋는 문제는 기술에서 예술의 독자적인 분리를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예술과 학문사이의 계선을 긋는데서 1687년에 문학분야에서 벌어진 학문과 시에 있어서 고대인과 근대인의 우열에 관한 논쟁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쟁에서는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학문이나 과학은 고대시기에 비하여 발전하지만 시를 포함하는 예술에 있어서는 그러한 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예술은 학문이나 과학과 경계가 그어지게 되였던것이다.

18세기에는 《기계적기술》과도 구별되고 《자유로운 기술》속의 학문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령역으로서의 근대적예술개념이 성숙되어갔다.

근대적인 예술개념의 출현에서 18세기 프랑스의 고전학자, 철학자인 바트(1713-1780)의 저서인 《동일한 원리에 환원된 제 예술》(1747)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바트는 여기서 《제 예술》의 원리를 모방이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호라티우스 등 선행자들이 제창한 모방의 원리가 회화나 시, 음악, 무용 등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기술에 대하여 그것은 《능하게 만들기 위한 규범》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술의 원천은 자연이며 기술은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첫째로는 인간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고 둘째로는 기쁨(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며 셋째로는 실용성과 오락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라는것이다. 그러면서 기쁨(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며 여기에는 음악, 시, 회화, 조각, 무용이 속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학적측면에서 본 《쾌》뿐만아니라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쾌》도 포함한 미적인 향유로서의 《쾌》를 의미하는것이였다.

결국 바트에 의하여 모방을 원리로 하는 예술이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다른 기술과 구별된다는것이 강조되고 점차 기술속에서 예술의 독자성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적전제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근대시기 기술과 예술의 관계변화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예술의 모방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해지면서 예술개념이 정식 확정되고 기술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것이다.

지난 시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술은 모방의 기술이라는 견해에서 모방과 기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것은 예술을 기술과 분리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근대시기 예술의 원리인 모방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해졌다.

예술의 모방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서 바트의 견해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는 모방이란 어떤 대상을 베끼는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모방의 대상으로 4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실재하는 세계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세계이며 역사적인 세계로서 위대한 인물들과 유명한 사실, 현상들의 세계 즉 역사이다. 그리고 신화의 세계로서 상상에 의한 신들과 영웅들로 가득찬 세계이며 리념적으로 가능한 세계 즉 상상의 세계이다.

모방의 대상에 대한 바트의 견해에는 신비주의적인 색채도 있지만 그의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모방의 대상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세계나 지나온 역사만이 아니라 리념적으로 가능한 세계 즉 리상으로 그려보는 세계까지 확대한것이다.

예술은 현실에 있는 인간과 그 생활을 원천으로 하여 그것을 그리면서도 단순히 재현하는것이 아니라 리상화하여 새롭게 창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트의 예술의 모방대상에 대한 견해는 일련의 합리적인 면을 가진다.

그에 의하면 예술이 자연의 모방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맹목적인 모사가 아니라 현명하고 식견이 있는 모방이라야 한다. 자연은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있을수 있는 자연 즉 정신에 의해 그려진 자연이다.

이렇듯 근대에 와서 예술의 모방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해지면서 예술은 정식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기술과 분리되게 되였다.

예술의 모방과 함께 기술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가해졌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예술은 기술의 한 부분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영국의 리론가인 달랑베르(1717-1783)는 새로운 분석을 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술은 실증적이고 불변의 규칙에 환원할수 있는 지식체계이다. 그는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에 대한 규칙》을 《자유로운 기술》로, 《신체의 작용에 대한 규칙》을 《기계적기술》로 구별하였다. 이것은 그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고대이래의 《기술》에 대한 견해에 추종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는 예술이 다른 《자유로운 기술》과 구별되는 종차에 대하여 자기 식의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달랑베르는 이와 관련하여 바트와 마찬가지로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고 《쾌》를 목적

으로 한다는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달랑베르는 이것만으로는 예술의 종차가 다 밝혀진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것(모방, 패)이 예술을 문법이나 논리학, 료리학과 같은 보다 필요하거나 유용한 자유로운 기술과 구별되게 하는 유일한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후자(문법학, 논리학, 료리학)는 정해진 확고한 규칙을 가지면서 누구나가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수 있는데 비해 예술의 실천은 주로 특출한 창의적발명에 있는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기술의 규칙성에 비하여 예술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예술을 기술과 구별해보려고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가 예술의 실천은 주로 특출한 창의적발명에 있다고 한것은 예술을 그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진 천재들의 창조물로 보는것으로서 예술의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달랑베르에 의하여 예술이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기술》이라는 견해가 제기됨으로써 전통적인 기술에 대한 견해가 타파되고 예술은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하고 《패》와 더불어 《미》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기술을 벗어난 《기술》로 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러 예술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 분야로 기술속에서 분리되고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기술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예술발전에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를 원만히 반영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기술, 예술